



3면

전북도-충남도, 상생발전 맞손'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음 9월 3일) 제33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SOC 예산 복원 '공감대'

김관영 지사-국회 기재위 새만금 예산 현안 간담회

김 지사 "나라의 제대로된 업무 관행 세운다는 관점에서 간곡히 부탁" 예산 복구 요청
기재위원들 "예산 복구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김관영 도지사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새만금 예산 삭감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김관영 도지사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관 위원들이 16일 오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새만금 예산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대거 삭감을 놓고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 기재위에 예산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기재위원들도 새만금 SOC 예산 복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다.

간담회에는 기재위 감사관 위원들로 한병도 의원과 감사관장 유동수 의원, 박광온·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기재위원들에게 "전북이 처한 이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격으로 인해 전북인들이 절망감과 비통함 분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자리 계신 위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정상적 새만금 진행 사업들이 갑자기 잦버리가 끝나고 나서 바뀌었다. 5월 30일까지 각 부처 요구 예산이 변화가 없다가 잦버리 이후에 기재부에서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서 회의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에 과거 8년간 1조5,000억 원 투자유치가 됐지만 최근 1년간 7조 원의 투자유치가 됐다"며 "투자유치 할 때 신항만과 전주간 고속도로, 신공항 철도 등 기반시설이 완공될 수 있었다고 기업을 설득했는데 이걸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고 흉당해놓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 얼굴 보기 죄송스럽다. 기업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잘못된 예산심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의 제대로된 업무 관행을 세운다는 관

점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새만금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기재위원들은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새만금 예산 사수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기재위는 국가재정과 예산 사업 전방을 관할하는 상임위원 만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새만금 예산 복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큰 힘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동수 의원은 "예산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은게 느껴진다"면서 "새만금 예산삭감은 30년간 새만금은 매일 그림자 그림자 이제 좀 투자 유치가 되고 이제 새만금의 본 궤도에 투자 유치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해방을 놓아버리는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실질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허물어뜨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정말로 감히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이 정권의 무도함이 되는 이 예산 편성, 새만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

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 하는 것이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새만금 예산을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밝힌다"면서 "그 싸움은 결국 우리 당이 밀리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성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단단하게 모아서 새만금 예산을 모두 다 복원시켜줄 것"이라며 "또 전북 도민들이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선봉에서 쟁다"고 약속했다.

양경숙 의원은 "10년이 넘는 사업인데 이제 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복적으로 지역차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78%나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더군다나 전북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의 78%를 기재부가 삭감해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워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새만금 예산 정상화 범도민 결집'

도의회·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수도권 내 출향단체와 간담회... 대정부 투쟁 수위 강화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잦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기의원 부안)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조지훈 사무총장 등은 16일 서울에서 수도권 내 전북도 출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사진 3면)

이날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경기인천 전북도민회 연합회, 재경전북도민회 및 신규회합의회 전국총연합회와 총연합회와 연세 간담을 통해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한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폭력 및 잦버리 파행 책임의 전북도 전가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범도민 역량 결집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결집대회'의 대규모 결집을 위한 항우회 및 도민회 차원의 활동, 시민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도의회 대응단은 주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면담 오는 24일에 대해 조정된 도 국정감사 현장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내달 범도민 결집대회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전방위 대응

도, 국조실 부처회의서 주요 특례 긍정 반응 이끌어내
내달 21일 국회서 연내 법 통과 기원 도민 결집 행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한 막바지 전방위적인 부처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처 조정회의에서 부처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장·차관을 중심으로 지휘부가 집중 활동을 펼침으로써 금융전 문인력 양성, 농생명융합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주요과제에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조실과 진행한 부처와의 조정회의는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문화부 등 13개 부처와 농지법, 금융, 이민, 케이팝 등 2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회의는 도 자체적으로 8차례 걸쳐 26개 부처를 찾아다니며 부처 활동을 전개하면서 부처의 방위적이고 부정적인 벽에 부딪혔던 조문들에 대해 국조실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도는 필요성과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

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특례에 대해 지휘부가 나서서 장·차관 면담 등을 병행하면서 미온적이던 농생명융합의체 설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 16개 과제에 대해 전향적 신호를 확인했다.

민선5기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도민 희망이 되는 주요 특례 반영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11월 국회 심의 동안 핵심 제도개선 과제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회 상주 활동반 운영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6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와 관련, 전북도는 도민의 간절히 염원을 확인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21일 국회에서 도민 결집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도민 서명 운동은 국회에서 열리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 시 국회의장, 양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